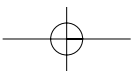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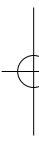




일 반 논 문



중국 노동운동의 역사와 유산:

문혁 전홍총(全紅總) 투쟁

장윤미*

요 약

본 논문에서는 문화대혁명 시기 등장했던 임시공 투쟁, 특히 대표적인 전국조직인 전홍총(全紅總)을 중심으로 중국 노동운동의 역사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현재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임시공들은 문혁 초기 가장 먼저 횡적으로 연합하는 지역적 혹은 전국적인 조직을 기획했다. 이는 기존에 호구와 소속 단위로 분리 통제되는 구조적 제한을 깨고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쟁취하려는 시도였다. 중국 지도자들은 단위나 업종, 지역을 초월한 이러한 운동방식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으며, 여전히 소속 단위를 중심으로 한 세포적, 수직적 통제 구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전홍총 등 임시공 조직의 투쟁은 줄곧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기존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전홍총은 강령성 문건을 통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임시계약공 제도 취소, 차별 철폐, 정식공과 평등한 임금과 복지대우 등을 요구했다. 임시공의 투쟁 목표는 노동계급 중에서도 최하층인 임시계약공의 노동권과 생존권이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당의 통제와 의도에서 벗어나려했던 독립적인 노동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혁 이전 대중은 고립되고 정치에 있어 수동적인 요소였지만, 문혁이라는 정치 환경의 변화 속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만남으로써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된다. 요컨대 문혁이라는 무질서한 상황은 역설적으로 각 지역과 단위 내에 ‘고립’된 노동주체를 전국 규모로 ‘교류’ 시킴으로써 공동의 집단행동을 벌이게 만들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임시공들은 점차 대중적 각성의 힘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획기적인 전환은 이후 노동자들의 계급적 각성이나 정체성 형성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제어: 중국 노동운동, 전홍총(全紅總), 문화대혁명, 임시공 투쟁, 두 개의 문혁설

*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BK사업단 연구교수

I. 문제제기

1990년대 중반 이후 자본의 거대한 이동과 노동 상품화의 가속화는 중국에서 노동 불안의 흐름을 증가시켜왔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노동 관련 분쟁이 급증했고, 주로 신세대 농민공(農民工)에 의한 시위가 크게 늘어났다. 2010년 세계적 전자부품 회사인 타이완 홍하이 그룹의 자회사 폭스콘의 중국 현지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연쇄 자살 사건이 발생했고, 5월에는 임금 인상 및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는 난하이(南海) 혼다 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 사건이 있었다. 혼다파업이 언론에 광범위하게 보도되면서 5월 중순부터는 중국기업과 외자기업에서 임금인상과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 파업이 잇달아 일어났다. 또한 2011년 6월 11일에는 광저우 외곽에 위치한 칹청(增城)시 신탕(新唐)진 다둔(大敦)촌에서 대규모 농민공 시위사태가 발생했다. 현지 치안대에 의한 폭정과 착취, 빈부격차에 분노한 농민공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6월 6일 차오저우(潮州)에서도 쓰촨 농민공의 체불임금 요구를 계기로 대규모 집단시위가 벌어졌다. 또한 11월 하순 선전(深圳)과 둥관(東莞) 등 광둥성 등지에서는 세계경제 위기 이후 급감한 수출로 인해 공장의 주문량이 줄어들어 공장에서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려하자 작년 혼다 파업 이후 최대 규모의 노동자 시위가 곳곳에서 발생했다.

개혁 이후 시장 확장의 역사 속에서, 또한 90년대 말부터 급속히 확대된 빈부격차 과정에서 중국 노동자는 점차 주변화되는 동시에 정치화되어왔다. 기존에 주로 지식인의 범주 내에서만 머물던 개혁 논쟁은 점차 대중적 차원까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대중적 차원에서의 이념 갈등 역시 고조화되고 있다.¹⁾ 이는 비단 중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미국, 유럽, 중동, 아시아

1) 현재 중국 네티즌의 규모는 이미 4.85억명에 달하며, 인터넷 상에서 이데올로기 좌우대립, 엘리트와 대중 간의 대립, 빈부대립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패한 관료나 부자에 대한

각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세계적인 현상이며, 이러한 이념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신자유주의로 인한 빈부격차 확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방식의 개혁이 대중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러한 방식이 가져온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미래의 대한 희망조차 빼앗긴다는 점을 대중들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선 공정하지 못한 시장경제 물과 특권층에 대한 분노가 절정에 달하면서, 다시 과거 마오쩌둥(毛澤東)을 불러와 특권층을 비판하려하는 세력과 개혁의 가속화를 통해 시장경제의 규범화와 법제화를 강조하는 세력으로 갈라져 논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논쟁의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과거의 기억을 불러내어 다시 이를 재해석하고 자신들의 집단행동을 정당화하는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노동자의 입장이 하나로 일치되고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는

불만 정서가 심각해지는 추세다. 대표적인 이념 논쟁으로는 2004년 국유자산유실 문제를 둘러싸고 경제엘리트 집단을 비판한 이른바 량셴핑(良咸平) 논쟁이 있었고, 2011년 5월에는 대표적인 마오주의 웹사이트 중 하나인 유토피아(wyzzsx.com)에서 마오쩌둥과 그의 정책을 비판한 자유주의 경제학자 마오위스(茅於軾)와 신쯔링(辛子陵)을 고발하기도 했다. 또한 2011년 11월 7일에는 대중좌파의 지지를 받는 베이징대의 쿵칭둥(孔慶東) 교수가 자유주의 성향의 언론매체인 〈南方人物周刊〉 기자에게 욕을 한 사건도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이 사건은 온라인에서만 그치지 않고 산시 타이위안(太原)과 허베이 스자좡(石家莊) 지역의 쿵칭둥 지지자들이 〈南方周末〉와 〈南都周刊〉 등을 모아놓고 전부 불태우는 사건으로 이어졌다. 이들이 내건 구호는 “중화민족을 위해 매국 언론매체인 남방신문을 불사르자”였다. 이에 앞서 남방신문은 충칭모델을 경계하며 충칭의 리쥔(李莊) 사건을 보도했고, 이러한 보도에 불만을 품은 충칭 공안부장 왕리쥔(王立軍)은 남방신문을 반격의 표적으로 삼는다. 이후 쿵칭둥 교수는 남방신문을 기소하자며 대중들을 선동하기도 했다. 광둥에 본사를 둔 남방신문은 그동안 중국 사회문제에 대한 심층보도를 많이 해온 것으로 유명한데, 광둥성 선전부장인 린쑤(林雄)은 80년대 온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비서를 지냈고 남방신문은 온자바오 총리의 활동과 연설에 대한 보도를 가장 많이 해왔다. 최근 온자바오 총리는 여러 자리를 통해 ‘봉건제도의 잔재’와 ‘문화대혁명의 폐해’를 언급하며 중국의 ‘좌전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요컨대 현재 중국의 이데올로기 좌우대립은 민족주의적 성향을 기반으로 한 대중 중심의 마오좌파와 범치와 점진적 정치개혁을 강조하는 엘리트 중심의 자유주의파로 나뉘어 볼 수 있다. 지역적으로 대중 좌파는 충칭 등 내륙지역을, 엘리트 우파는 광둥 등 연해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최근 충칭모델을 둘러싼 지지와 우려는 중국 사회의 이러한 대립적인 이데올로기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것은 아니다. 여전히 소유제별, 지역별, 고용형태별, 신분별, 세대별, 성별 차이가 존재하며, 대부분의 노동자들도 이러한 차이를 뛰어넘어 자신들을 동일한 계급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집단행동이 일상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의 사회관리 틀 속에서 통제되고 있으며, 당국에서도 몇 가지 불허 원칙(정치적 이슈, 전국적 조직, 민주체제 요구)을 위반하지 않는 한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려 애쓰고 있다.

이러한 중국 노동계급의 행동양식과 이에 대한 오늘날 정부의 대응방식은 과거와 매우 유사하다. 농민공이라는 신노동계급에 의해 주도되는 현 노동운동의 쟁점과 양상은 문혁 당시 비정규직 노동자인 임시공(臨時工, 혹은 短工이라 불림)들의 시위와 닮아있다. 체제 내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 새로운 젊은 세대 노동자가 투쟁을 주도한다는 점, 그리고 여전히 ‘출신’에 따라 신분이 규정되어있다는 점 등이다. 또한 집단행동의 배경에는 특권계층에 대한 반감과 불합리한 불평등 구조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폭발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유사하다.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가 많은 사람들을 문혁에 참가하게 만든 중요한 동기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오늘날 점차 벌어지고 있는 빈부격차와 불평등 구조는 문혁 직전과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중국 현대사의 고비마다 대중을 동원한 중요한 정치적 운동이 존재했지만, 노동운동은 언제나 정치운동의 종속적 위치에 놓여 있었으며, 당국은 공식 노조(中華全國總工會, 이하 전총)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자발적인 노동조직도 허용한 적이 없었다. 개혁이후 노동통제의 방식은 경제적 이슈에는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며, 노동자 집단행동을 언제나 단위(單位) 내로 제한하고 지역적 연대를 차단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과거 문혁 시기에 통치엘리트의 분열 구조 속에서 전국 조직인 전홍총(全國紅色勞動者造反總團, 약칭은 全紅總)이 예외적으로 등장한다. 전홍총은 신중국 역사상 노동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공식노조에 도전한 최초의 전국 조직이며, 기존 체제에 도전하는 이러한 노동자 조직은 이후 89년 천안문 사건

때 다시 등장한다.

이 글에서는 문혁 초기 짧은 기간 동안 등장했던 임시공 운동을 통해, 중국 노동운동의 주체와 이슈의 문제를 살펴보고, 과거 노동운동이 갖고 있는 현재적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몇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이 글에서는 역사의 승리자인 중국 공산당에 의한 역사 서술 독점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중국 당국에 의한 공식적인 발표와 문헌화된 역사 평가 틀에서는 오늘날 다양한 정치 이데올로기 분파와 사회적 갈등, 문제의 원인 등을 해석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공식문헌에 대한 의존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행위 주체 간의 정치를 다룸으로써 당국체제(party-state system) 구조 속에 ‘포박된 정치’에서 벗어나 ‘자각의 정치’ 측면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둘째, 현재 단선론적이고 진화론적인 계몽적 역사 모델에 도전하며 고유한 중국적 모델을 강조하는 비판적인 사조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적인 탈서구중심적 시도 역시 계몽 모델이나 근대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권력의 관점에서 채택된 ‘선택적 기억’이 아닌 인민 주체에 의해 불려지는 ‘대항 기억’을 회복함으로써 전유된 역사를 좀 더 넓은 시각에서 파악하여 현재적 의미를 되새겨보고, 대안적 모델의 재구성을 위한 역사적 상상력의 자원을 보태고자 한다. 셋째, 현 노동운동사 연구는 당국체제 틀에 갇혀있다. 기존 중국의 노동운동(이른바 ‘工運’)은 국가기관 틀에 갇힌 동원된 운동으로, 노동자 국가에서 노동자 조직은 있지만 노동자가 주체가 된 노동운동은 없었다. 중국은 ‘당안(檔案)’에 대한 권위적, 위계적 접근을 통해 대안의 서사들을 통제해왔고 이러한 과정에서 당국체제의 주변 혹은 밖으로 벗어난 역사와 단절되어왔고, 결과적으로 노동자들과 멀어졌다. 이 글에서는 당국체제 구조로부터 자율적인 노동 주체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억압적 역사 서술에서 벗어나 대항 역사를 회복하고 엘리트 정치 영역에 종속되지 않는 인민의 정치 영역이 존재함을 드러냄으로써 역사를 전체화된 것으로 다루는 것에 반대하고자 한다. 요컨대 전체화된 역사 인식의 틀

을 깨고 역사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역사 해석이 틀렸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독점되어 서술된 역사만이 옳고 정당하다는 시각에 반대하는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을 좀 더 넓은 인식의 공간에서 사유하여 향후 정치변화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자 함이다.

이상과 같은 시각에서 중국 노동운동의 역사를 공식 역사 서술의 틀에서 벗어나 대항의 서사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문혁 시기 전국적으로 나타났던 임시공 투쟁은 어떠한 특징과 의미를 갖는가? 임시공 투쟁의 대표적인 전홍충 조직은 상층부 투쟁의 산물인가, 독립적인 노동운동인가? 이 글에서는 문화대혁명 시기 등장했던 대표적인 임시공 조직인 전홍충의 조직화 과정과 이들의 주장 내용, 그리고 전홍충 투쟁의 의미와 한계를 통해, 중국 노동운동의 역사와 유산을 고찰해보고자 한다.²⁾

II. 두 개의 문혁설과 임시공 투쟁

문혁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 평가는 ‘문혁동란설’이다.³⁾ 동란은 문혁

2) 중국 정부는 문혁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자료들에 대한 공개를 제한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문혁 연구의 시각은 대개 자료의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식층이나 관료층 이외에도 다양한 계층의 문혁 경험자들이 자신이 겪었던 사건에 대해 서술한 회고록이 많이 소개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이 지역이나 국경 등 공간적 제약을 초월해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거나 과거 역사에 대한 상호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면서 다양한 회고록이 공개되고 있다. 전홍충의 역사를 다룬 이 논문 역시 과거 전홍충을 조직했던 당사자의 직접적인 체험담을 수록한 회고록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통치권력의 과거 역사에 대한 독점적 해석을 보완하고 좀 더 풍부한 역사적 해석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1981년에 발표한 「關於建國以來黨的若干歷史問題的決議」(이하 역사결의)에서는 “문혁은 마오쩌둥이 잘못된 정세판단 하에 발표한 것으로, 린바오(林彪) 일파와 4인방이 국내를 대 혼란에 빠지게 한 내란이었다”고 평가한다. 이 평가는 문혁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평가로 이후 역사해석에 대한 정치적 준거가 된다. <http://cpc.people.com.cn/GB/64162/64168/64563/65374/4526448.html>.

조반파(造反派)가 일으킨 것이고, 대재난을 당한 것은 중화문화, 지식인, 당 간부라는 것이다. 그러나 조반파들은 이는 관방의 기억에 불과하며 현재 역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과거 역사를 왜곡하고 조반파를 요괴화해 왔다고 비판한다(周倫佐 2006). 또한 문혁 초기인 ‘사구 타파(破四舊)’ 시기 홍위병에 의해 자행된 전통문화 파괴, 무고한 인민에 대한 박해, 사회질서 파괴 등의 폭행을 모두 조반파에게 뒤집어씌운다고 비판한다(方圓 1997). 조반파란 당시 권위와 질서에 반대했던 사회 각 영역에서 억압받고 소외된 집단을 말한다. 4구 타파 홍위병(보수파)은 주로 공산당·공청단의 핵심분자와 간부자녀들로 구성되었고, 출신이 좋지 않고 홍위병에서 배제되었던 사람들은 이후 조반파를 구성한다. 공장 안에서도 적극분자들(당의 기층간부, 숙련공, 기술공, 구세대노동자, 노동모범)은 대개 당을 보위하는 보수파로, 보통 노동자와 청년 노동자 등은 혁명노선을 견지하는 조반파가 된다. 이들은 관료 사회주의 하의 각종 특권과 불평등문제를 공격했다(何蜀 2006; 陳東林 2000).

그러나 조반파 운동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국유나 집체 단위 내에 소속된 정규직 노동자들로, 이들은 문혁 초기 적극적으로 운동에 참여하나 이후 당에 의해 규범화된 대중운동의 틀 안으로 정리된다. 조반파 혁명대중은 질서의 단계로 들어서자 혁명위원회(이하 혁명위)라는 새로운 정권의 틀 내로 포섭되는 동시에, 점차 권력의 주변으로 밀려나고 단계적으로 숙청된다. 반면 임시공 투쟁은 당으로부터 일정한 독립성을 유지한 자발적인 운동이었고, 전홍총의 불법화 이후에도 많은 임시공들이 차별적 제도 철폐를 지속적으로 주장했다는 점에서 노동운동의 관점에서 분석해볼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임시공 투쟁에 대해 중국은 공식적으로 국가재정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명백한 잘못이라고 규정한다.⁴⁾ 재미있는 점은 임시공 투쟁을 지원한

4) 중국의 공식적인 문혁 평가의 범주 내에서 진행된 문혁사 연구서를 보면 1966년 11월 8일

정치적 배후세력에 대한 규정이 67년과 문혁이 끝난 후에 달라진다는 것이다. 1967년 1월에는 당내 극소수의 자본주의 노선을 걷는 당권파가 문혁을 파괴하기 위해 투쟁의 목표를 돌려 소수의 실체가 불분명한 자들을 부추겨 경제주의를 책동한다고 비난하고 있다.⁵⁾ 그러나 문혁의 원인을 장칭(江青)과 린바오(林彪) 집단의 정치적 야욕의 탓으로 귀결시킨 개혁파의 역사평가 후로는 장칭이 1966년 말 연설을 통해 임시공, 계약공들의 조반을 선동했기 때문에 임시공들이 불합리한 경제요구를 제기했고 사회적으로 연쇄반응을 불러온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정치적 야심가들의 배후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사업장 복귀, 임금복지대우, 노동보호용품 확충 등을 요구했고, 경제주의라는 잘못된 풍조가 생겨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요컨대 임시공 투쟁의 배후에 대해 67년에는 문혁파가 당권파를 지목한 반면, 78년 이후에는 다시 정권을 잡은 개혁파, 즉 당권파가 임시공 투쟁은 문혁파의 선동에 의한 것이었다고 그 의미를 폄하한다.

임시공 투쟁의 배후에 이를 부추기는 정치세력이 있다고 보는 것은 임시공 투쟁이 지닌 독립적인 성격과 그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는 것이며, 따라서 임시공 투쟁이 중앙문혁파의 선동에 의한 것인지, 기층의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운동이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문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산당의 공식 입장이나 자유민주파들은 모두 문혁을 부정하지만,⁶⁾ 일각에서는 ‘두 개의 문혁’이라는 견해를 제기한다. 즉 마오의 문혁과는 다른 독립적인 인민의 문혁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하나의 문혁이

극소수의 계약공과 임시공이 전국적인 노동자조반조직인 전홍충을 만들었고, 이들의 행동으로 전국적으로 경제주의라는 잘못된 풍조가 불었다고 평가한다(王年— 1996).

5) 中共中央 「關於反對經濟主義的通知」(1967년 1월 11일)(中共研究雜誌社編輯部 1973, 89-90).

6) 중국 정부의 공식적 관점에서는 문혁 중에는 이른바 “공산 폭정에 반항하는 인민 봉기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金春明 1998).

군중운동을 이용해 정적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찬탈하는 통치자의 문혁 혹은 관방 문혁이었다면, 또 다른 문혁은 합법적인 조건을 이용해 특권층과 정치적 압박에 저항하고자 했던 피통치자, 즉 인민의 문혁이라는 것이다.⁷⁾ 이는 인민문혁과 마오문혁을 분리함으로써 문혁인민성을 논증하려는 관점으로, 두 개의 문혁설은 문혁 과정에서 나타난 군중의 상대적 자율성을 보여주며, 문혁 이전 중국 사회에 장기적으로 존재했던 계급 갈등을 설명해 준다. 이들은 문혁 초기의 자발적인 대중운동의 폭발력을 높이 평가하며, 문혁의 과정에서 착취와 압제와 특권에 반대한 저항적 성격을 지닌 대중운동이 있었다고 보면서 조반파의 등장을 정당화한다.⁸⁾

대표적으로 류궈카이(劉國凱 2006)는 수년 간 일상생활과 업무 과정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던 많은 대중들이 66년 말 그동안 마음속에 두고 말할 수 없었던 것, 제기할 수 없었던 합리적 요구들을 모두 털어놓았다고 본다. 그는 인민이 마오 문혁을 이용해 ‘박해 반대’를 요구했다는 관점에서 문혁의 합리성을 논증하고자 한다. 인민문혁이란 정치적 박해나 차별에 반대하고 복권과 생존권 쟁취, 공산당 통치체제에 충격을 준 군중들의 저항운동이라는 것이다. 왕시저(王希哲 2006)는 이러한 인민문혁의 사례로 ‘위뤄커(遇羅克)’ ‘샤오빙(曉兵)’ 사건과 함께 정치경제권리 평등을 위해 전국 노동자계급의 경제이익을 주장한 ‘전홍총’을 꼽는다. 우전룽(武振榮 2006)은 공산당의 공고한 관료통치가 문혁으로 전복되어 자유로운 공간이 생겼다는 관점에서 문혁의 합리성을 논증하며 문혁 연구의 다원화 문제를 제기한다. 마르크스 엥겔스 고전에 대한 독서로 마오사상의 틀을 돌파하고 3년 문혁 이후 이단적 사상을 직접 열었으며, 또한 민간에 언론자유가 생겼고

7) 두 개의 문혁설을 가장 먼저 제기한 사람은 王希哲로 그는 1980년에 발표한 “毛澤東與文化大革命”에서 인민문혁의 개념을 제기한다. <http://www.difangwenge.org/read.php?tid=1229&fpag=8>.

8) 인민문혁설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저서는 다음과 같다. 楊小凱 1997; 鄭義 1992; 劉國凱 2006; 王紹光 2004.

결사자유, 심지어 전국적인 민간군중조직이 나타났다고 본다. 요컨대 마오 문혁은 기존 질서에 대한 충격을 주었고, 인민이 쟁취한 자유공간이 자유 사상의 공간을 열었다는 것이다. 혁명사회주의자들 역시 노동의 문제를 계급관점에서 분석하며, 마오쩌둥 시기의 사회주의를 “관료사회주의” 시기로 파악한다(向青, 劉宇凡 1997). 이들은 문혁을 개혁파의 시각인 “10년 동란”으로도, 마오파의 시각인 “위대한 마오 주석에 의한 수정주의 반대운동”으로도 보지 않는다. 문혁은 상층 권력에 대한 노동자 농민 대중들의 의 해 아래에서 위로 주도된 권리 투쟁이라는 것이다.

물론 인민문혁설을 주장하는 이들도 인민의 주체 세력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또 다시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지만, 대체로 넓은 의미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두 개의 문혁설을 주장한다. 이들의 견해와는 달리, 자유민주주의자들은 이러한 인민 문혁 역시 완전히 관방 문혁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보며 두 개의 문혁설을 비판한다. 대표적으로 쉬여우위(徐友漁 2006)는 문혁 중 자신들의 이익을 요구하는 다양한 사회집단들이 있었지만, 중앙에서 이들의 조직을 금지시키자 조반파 조직 역시 이들과 경계를 분명하게 그었다고 보면서, 이들의 활동은 그 규모나 영향, 지속된 시간으로 볼 때 노동운동이나 시민운동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평가한다.⁹⁾ 같은 자유주의자이지만 주쉐친(朱學勤 1999)의 경우는 1966년 겨울에 있었던 계약공, 임시공의 정규직 전환이나 임금 재지급 요구라는 경제주의 행위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십년 문혁 중 민간의 유일한 ‘혁명적인 사회행위’였다고 평가한다. 동일한 사건을 두고 쉬여우위는 마오의 영향력을, 주쉐친은 자유주의적인 저항행위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개인이 겪은 다양한 문혁의 경험이 문혁 사건을 보는 관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9) 그러나 최근 2011년 10월 청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쉬여우위는 두 개의 문혁설이 현재 중국사회에 대해 현실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여전히 한 개 문혁설을 주장하지만 두 개 문혁설과의 간격을 좁히고 있다고 발언한다.

수 있다.

반면 넓은 의미에서의 인민문학설을 인정하지만, 관방문학과 인민문학을 분리해서 보는 시각은 자칫 마오를 관방문학의 수장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마오좌파들은 마오에게 내재된 합리성과 인민성을 강조한다. 마오문학이 조반파를 이용했다고 해서 마오에게 인민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 마오와 중앙문학의 지지가 없었다면 전홍총이 그러한 규모로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본다. 즉 전홍총 사상이 마오의 문학사상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며, 마오 문학을 빌어 압박에 반대하고 평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인민문학은 마오문학에 속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학의 인민성’ 측면을 논할 수는 있지만, 인민문학은 마오문학의 일부분이라는 것이다. 문학 조반파 중에서 최초의 이단사상이나 파리꼬뮌 식의 보편선거제 등 민주적 요구가 나타났지만 이는 마오주의와 원칙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홍총의 목표도 정치가 아니라 경제적인 것이었고, 특권이익을 쟁취하려 했던 운동으로 본다(閑話 2006).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각 이데올로기적 분파에 따라 전홍총 운동의 성격에 대한 평가나 마오와 문학을 연결짓는 방식이 각기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민주주의 계열은 마오를 비판적으로 보면서 아래로부터 조직된 전홍총 운동의 민주적인 성격에 주목하는 반면, 마오좌파는 마오사상에 내재된 인민성을 강조하며 전홍총 운동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경제적인 이익 쟁취에 불과했다고 선을 긋는다. 반면 자유주의자들은 마오와 문학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지만, 전홍총 운동이 갖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성격을 부분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전홍총의 조직과 투쟁 과정을 살펴볼 때 분명한 것은 인민문학이 공식적인 문학의 틀 안에서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수동적으로 관방문학에 종속되었던 것은 아니며, 마오가 설정한 한계와 궤도를 종종 넘어서서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군중운동을 이끌어냈다는 점이다.¹⁰⁾ 대중운동이 자체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통치의 원리이면서 독립적 사고를 고취시키는 마오사상이 갖고 있는 이

중적 성격 뿐 아니라 정세의 변화에 따라 모순적 입장을 취했던 마오의 태도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혁명의 구호 아래 사회 현실의 모순에 눈을 뜬 대중 스스로의 각성과 진정한 맑스주의 실현이라는 이상적인 측면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전홍총 등 수많은 임시공 조직의 투쟁은 줄곧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기존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문혁 초기 이후 체제 내로 포섭된 조반파 운동이 단순히 관료층에 대한 비판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임시공들의 운동은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기존 제도에 대한 변화를 요구한 체제변혁적 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 임시공의 투쟁 목표는 노동계급 중에서도 최하층인 임시계약공의 노동권, 생존권이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당의 통제와 의도에서 벗어나려했던 독립적인 노동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은 결국 중국 체제가 어디로 가야하느냐의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 이어진다. 대표적으로 후난 성무련(省無聯)의 양시광(楊曦光)은 후난 농촌에서의 사회조사를 통해 지식청년들의 도시 복귀 운동과 임시공, 계약공들이 노조를 만들어 경제적 요구를 제기하는 운동을 벌인다는 사실을 안다. 그는 중국에는 이미 새로운 특권계급이 형성되었고 이들이 인민을 착취하고 있다고 결론내린다. 중국의 정체(政體)와 파리로된 민주와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으며, 따라서 중국에는 다시 한 번 새로운 폭력혁명으로 특권계급을 뒤엎고 민선으로 관료를 선출하는 민주정체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楊曦光 1996). 이러한 중국 체제와 사회주의 제도의 미래에 대한 비판적인 대안 제기는 문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지며, 이러한 체제비판적 사고의 포문은 전홍총을 중심으로 한 임시공 투쟁에서 비롯된다.

- 10) 일련의 연구들은 군중조직 간의 파벌투쟁에 주목하면서 대중 동원의 본질적인 원인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익과 목적의 차이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운동이 완전히 이데올로기적인 충동에 속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행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印紅標 1995; 唐少傑 1995; 徐友漁 1999; 王紹光 2004.

III. 사회적 불평등 구조와 노동계급의 분화

사회주의 시기 완전고용과 교육, 의료, 주택 등의 복지시스템은 많은 국유기업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가져다주었지만, 이는 단위에 소속되어있는 이른바 ‘직공(職工)’¹¹⁾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전체 노동계급의 범주에서 보면 여전히 제한적인 것이었다. 마오시기도 여전히 도시농촌의 실업과 반실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이는 상당 규모 이상이었다. 인민공사운동, 상산하향(上山下鄉)운동, 지식청년(知青)의 하방(下放)운동 등은 이러한 실업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¹²⁾

본격적으로 도시 인구가 급증하게 된 것은 1958년 대약진 정책 때문이었다. 국가에서 노동권한을 하방하여 각 건설단위에서 농촌 노동력을 서로 경쟁적으로 고용하게 되자 도시 인구가 팽창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건국 이후 1957년까지 누적된 총직공수가 2,451만 명이었는데, 1958년 불과 1년 동안 전민소유제 직공이 2,081만 명, 85% 증가했다. 1960년에는 직공수가 5,969만 명까지 증가했는데, 이는 1949년의 7.4배, 1952년의 3.7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신규 노동력은 대부분 농촌에서 올라온 농민이었다. 그러나 대약진 정책의 실패와 중소 갈등으로 인해 소련으로부터 중요 설비의 공급이 중단되자 중국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1961년 경제조정시기에는 다시 도시에서 농촌으로 노동력이 이동하는 역도시화 현상이 나타난

11) 사회주의 공장 안에서 ‘직공’이란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 외에 관리 업무를 맡은 경영관리자도 포함된다. 즉 기업 단위 내에 소속된 직원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12) 상산하향운동 추진의 동기로 대체로 이데올로기적 동기(청년의 사상을 개조하고 사회차별을 소멸한다), 정치적 동기(질서를 회복하고 마오의 권위를 강화한다), 적극적 사회경제 동기(농촌과 변경지역을 개발한다), 소극적 사회경제동기(도시발전과 도시취업을 늦춘다) 등을 꼽는다. 그러나 이것이 통제의 논리인지 이데올로기적 신념에 의한 것인지는 시기마다 그 강조점이 다르게 나타났다. 문혁 이전에 진행됐던 상산하향운동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도시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이 컸으며, 문혁 시기 1968년에서 1977년 대규모 하방운동은 정치적 목적이 컸다고 볼 수 있다(潘鳴嘯(Michel Bonnin) 2006).

다. 1961년에서 1963년까지 거의 2천만명에 달하는 도시 직공이 원적지인 농촌으로 돌려보내지고,¹³⁾ 1967-1968년 2년간 1천만명의 시민이 농촌으로 하방된다. 다시 1968년 2천만명의 청년학생들이 상산하향을 떠난다. 이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도시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960년 19.7%에서 1972년 17.1%로 하락한다(陳安民 2006, 18-21).

50년대 말 과잉노동력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 이른바 두 가지 노동제도이다. 1958년 류샤오치(劉少奇)는 두 가지 노동제도와 두 가지 교육제도를 제기하며 기존의 전일제 학교 이외에 반공(농)반독(半工(農)半讀) 제도를 제창한다.¹⁴⁾ 이후 대약진을 거치면서 반공반독 학교가 점차 감소하지만, 1964-1965년 류샤오치는 다시 한 번 반공반독 문제를 ‘수정주의 반대와 방지(反修防修)’ 문제와 연결시켜 반공반독 학교가 크게 발전한다(馬戎, 龍山 2000, 49). 반공반독 학교는 대개 2~3년 학제로 1일 4시간 노동, 4시간 학습제이며, 식사가 지급되고 용돈이 나오지만 임금은 지불되지 않는다. 당시 중국 정부는 반공반독학교가 사회 약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는 효과적인 시스템이라 평가했지만, 사실 반공반독학생 두 명이 노동자 한 명 분의 일을 하고, 임금비용은 노동자 한 명 분 이하로 낮추는 저임금 활용의 측면이 있었다. 이는 현재 많은 주문기업에서 유연한 노동시장 시스템으로 최대한 노동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견습공(學徒工) 시스템과 흡사하다.¹⁵⁾ 문혁 기간 이러한 이중 교육제도는 자산계급의 산물로 비판받았고,

13) 1961년 중앙공작회의에서는 도시인구 감소 결정을 내려 각 기관, 기업사업단위의 직공, 특히 1958년 이후 농촌에서 모집된 직공을 농촌으로 돌려보낸다. 1962년 『關於進一步精簡職工和減少城鎮人口的決定』을 발표, 1957년말 이후 농촌에서 올라온 직공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낸다고 규정하고 있다.

http://news.xinhuanet.com/ziliao/2005-01/25/content_2505520.htm

14) 劉少奇, “我國應有兩種教育制度, 兩種勞動制度”(1958.5.30.)(劉少奇 1985).

15) 노동자들의 잇따른 자살 사건으로 유명해진 폭스콘은 노동계약서와 사회보험 가입이 필요없는 견습공(인턴사원)을 대량 고용하고 있으며, 일부 작업장의 경우 인턴사원의 비율이 50%에 달한다. 주문이 많은 생산 성수기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가장 유연하고 저렴하고 순종적인 노동력을 변칙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 학생에 대한

학생도 노동자도 아닌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반공반독 학생들은 초기 홍위병운동의 중요한 주역이 된다(宇野重昭 외 1988, 224).

또한 농촌 인구의 도시로의 대량 유입을 막기 위해 도입한 호구제도에 따라 중국은 1958년 이후 두 가지 신분제, 즉 농촌호구와 도시호구를 구분하게 된다. 도시호구라도 모두 같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준에 따라 등급이 나뉘는데, 도시 규모 등급(시급도시, 현급도시)에 따른 지역신분차이, 업무단위소유제(전민소유제, 집체소유제)에 따른 소유제신분 차이, 고용편제(간부편제, 노동자편제)에 따른 편제신분 차이, 고용제도(정식공, 임시공, 계약공)에 따른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신분차이가 존재했다. 이러한 신분 차이는 기회의 불평등과 물질이익의 차별을 의미하며, 신분이 가장 높은 사람은 전민소유제 단위의 직공으로, 종신직업보장, 의료보험 혜택, 주택분배, 높은 수준의 퇴직금 등의 혜택을 받았다.

이러한 복잡한 등급제 구조에서 도시 노동자 중 지위가 가장 낮은 것은 임시공, 계약공, 외포공(外包工, 파견노동자)이었다. 이러한 비정규직 고용형식은 사회주의 시기 종신고용제 강화로 약화되지만, 1960년대 류샤오치가 철밥그릇(鐵飯碗) 고용제도의 폐단을 지적하며 임시공, 계약공, 외포공의 고용형식 확대를 건의하면서 노동고용제도의 유연성이 확대되었다.¹⁶⁾

관리는 공생의 이익관계를 맺고 있는 직업학교와 기업에서 공동으로 통제하고 있다. 작업장 내 각종 사고와 산재 상황은 중간관리자에 의해 은폐되고 있으며, 법에 의한 보상이 아니라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산재상황을 축소·은폐하고 있다. 식사, 수면 등 일상생활 역시 최저 비용과 최단 시간 안에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해 작업라인처럼 배치되었다. “「兩岸三地」高校富士康調查總報告,” 2010/10/17. <http://www.21ccom.net/soft/zlfx/shehuixue/2010/1011/21502.html>.

- 16) 국무원은 1962년 『關於國營企業使用臨時工的暫行規定』(<http://law.51labour.com/lawshow-57457.html>), 1965년에는 『關於改進對臨時工的使用和管理的暫行規定』(<http://law.51labour.com/lawshow-69371.html>)을 발표한다. 이 규정에 따라 각 단위에서 임시공을 채용할 때 모두 노동계약을 체결한다. 이 문건은 노동력에 대한 합리적인 사용을 강조하며 임시공 노동력을 쉽게 고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주요 골자는 “두 가지 노동제도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고정공을 적게, 임시공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으로, 생산과 업무에 필요에 따라 직공을 채용할 때 한시적, 계절적인 업무에 대해선 임시공을

1964년 경제가 호전되면서 상하이 공장에서는 많은 임시공과 계약공을 모집했고, 또한 일부 생산공정을 하청주기도 했다. 이러한 고용형식은 취업을 확대했고 기업의 부담도 감소시켰다.¹⁷⁾

그러나 당시 정부의 선전과는 달리, 구체적인 현실과정에서 이러한 정책의 폐단은 곧 드러나게 되었다. 우선 임시공, 계약공과 정식공의 ‘동일노동 다른 임금’은 사회주의의 평등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노동계급 내부의 계층분화를 인위적으로 조성했다. 이는 문혁기간 있었던 군중조직 간의 파벌투쟁과 관련이 깊다. 또한 임시공, 계약공의 소득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해나가기 어려웠다. 당시 사회보장체계의 단일성과 폐쇄성으로 의료보험, 노동보험, 양로보험 등 사회보장이 종신고용과 하나로 합쳐져 체제 밖에 있는 노동자는 이러한 혜택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들은 노동복지 뿐 아니라 일자리 자체가 불안정했다.¹⁸⁾ 또한 임시계약직은 노조에 참가할 수 없어 정치생활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으며, 이러한 정치적 권리의 배제는 경제적 혜택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¹⁹⁾ 정부의

사용해야 하며, 임시 업무에 이미 고정공을 사용한 경우에는 점차 임시공으로 바꾼다고 규정하고 있다.

17) 당시 여론에서는 이러한 고용제도개혁으로 세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선전했다. 1) 임시공과 계약공의 임금과 복지 수준이 정식공보다 크게 낮아 임시공과 계약공의 대량 사용은 기업의 생산비용 절감에 유리하며 이로써 국가에 대한 기업의 공헌을 증가한다. 2) 임시공과 계약공은 주로 농촌에서 왔다. 이들의 대량 사용은 국가의 거시적 사회분배모델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가 농민과 농업을 부양하는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이다. 3) 기술과 생산경험이 풍부한 기업 직공을 하방시켜 변경을 지원하도록 동원하는 것으로 농촌과 변경지역에서의 농업발전을 촉진시키고 중국 사회의 경제구조를 개선하며 공업화와 도농일체화의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다(董國強 2009).

18) 문혁이전 전민소유제 정식공의 최저임금은 매달 40위안, 집체소유제는 35위안 수준이었지만, 임시계약직은 30위안 미만이었다. 당시 상하이의 최저생활비용은 1인당 9위안으로, 30위안이면 가족 3명 정도 부양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당시 대개 가정은 두 명 이상의 아이를 두고 있었다(李遜 1997).

19) 1951년 발표되고 1953년 수정된 『中華人民共和國勞動保險條例』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비노조회원의 질병 혹은 업무로 인한 부상이 아닌 치료기간의 임금과 구제비, 업무로 인한 장애가 아닌 구제비, 직계친족 공양 구제비, 양로보조비, 장례보조비 등은 규정액의 반만 수령할 수 있다.”

배분에 의해 평생 신분이 결정됐고 개인적 노력에 의해 정해진 신분을 바꾸기는 거의 불가능했다. 개인의 힘으로 부를 창출할 방법이 근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분배정책의 융통성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임시공 뿐 아니라 정규직인 정식공 역시 자신이 하루아침에 ‘정리해고’ 될 수 있다는 점을 두려워했고 따라서 당과 정부, 기업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문혁 중 류샤오치를 비판하면서 임시공, 계약공, 외포공 고용제도 역시 “자본주의 부활”이라고 비판되었다. 분배권을 장악한 간부가 문혁 중 공격받고 위신이 추락하자 분배정책 변화의 희망이 급속히 늘어났다. 전홍총은 정규직 전환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하며 당시 임시공, 계약공 제도의 실행당국인 노동부와 정규직 노동자의 조직인 전총을 공격했다. 또한 많은 공장에서 1959-62년 경제쇠퇴기에 실시했던 지출긴축, 노동자의 노동보호비용 삭감, 작업복의 지급주기 연장, 노동보호용품의 발급 범위 및 기준 축소, 야근 식사보조비 지급 대상 축소, 위험 업종 노동자에 대한 영양보조금 기준 감소 등이 1966년이 되었을 때도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노동보호용품과 보조비는 저임금의 노동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소득이었고 따라서 문혁이 시작되자 많은 노동자들이 기존의 노동보호대우를 회복해달라고 요구했다.

문혁 이전 정책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또 다른 세력은 하방청년들이다. 1960년대 상하이는 취업압박을 줄이기 위해 당시 ‘사회청년’으로 불리던 무직 청년과 중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동원하여 상하이 교외 현 농장이나 더욱 먼 신장(新疆) 지역 농장으로 보냈는데, 거의 반강제적 동원이었다. 1964년 이후 하방정책이 강화되어 농촌 정주를 목적으로 한 인민공사에 대한 삽대(插隊)방식(인민공사에 들어가 농민과 똑같이 생활하는 것)으로 변하였다. 문혁 중 이들도 상하이로 돌아와 호구 복귀를 요구했다. 예컨대 상하이

교외 현인 장흥다오(長興島)의 경우 각 농장의 하향청년 1만여 명이 모두 상하이로 돌아와 100명밖에 남지 않았다(李遜 1997). 따라서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1967년부터 가속화된 하향운동(홍위병을 도시에서 퇴출)은 실제로 당시 도시가 안고 있던 수백만 규모의 실업자 부담을 감소시켜주었다는 점에서 정치경제적 목적에 복무한 셈이라 할 수 있다. 문혁 초기 도시로 돌아와 호구 복귀를 요구했던 하방청년들은 1967년 10월 8일 〈긴급통지〉에 의해 농촌으로 다시 복귀했고,²⁰⁾ 1967~76년까지 1,700만명의 도시 청년들이 자발적 혹은 강제적으로 농촌에 보내졌다(마이스너 2004, 19장).

이밖에도 회향지농(回鄉支農, 농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감) 노동자 조직이 있다. 1958년 대약진 이후 경제쇄퇴시기 많은 공장에서 일감이 없어 조업중지나 半조업중지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가족이 농촌에 있거나 원적으로 돌아가 정착할 수 있는 도시 직공들은 퇴직시켜 농촌으로 돌려보냈다. “국가를 위해 고통을 분담” 한다는 명분으로 국가경제상황이 좋아지면 우선적으로 복직시킨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상하이의 경우 당시 정리해고된 노동자는 31.2만명으로 그중 18.3만명이 농촌으로 돌아갔고 12.9만명은 상하이 도시 가도(街道)로 내려갔다. 해고된 대다수는 1958년 이전 일을 시작한 老직공들로 대부분 농촌으로 돌아갔고, 1958년 이후 일을 시작한 新직공들은 대부분 상하이시구의 유희노동자들로 이들도 사퇴 대상이 되었다(李遜 1997). 농촌으로 돌아간 직공들의 호구는 모두 농촌호

20) 中共中央, 僞國務院, 中央軍委, 中央文革 「關於下鄉上山的知識青年和其他人員必須堅持在農村抓革命, 促生產的緊急通知」(1967년 10월 8일)(中共研究雜誌社編輯部 1973, 100-101). 긴급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하향상산 지식청년은 반드시 농촌생산 근무처를 지키고 ‘혁명매진, 생산촉진(抓革命, 促生產)’의 모범을 보인다. 변경지원인원, 농장직공, 퇴역군인, 감원하방인원, 사회를 떠도는 사람들 및 문혁 기간 하향되어 정착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여전히 도시에 머물고 있는 하향상산 청년들은 즉각 농촌으로 되돌아가 현지에서 혁명을 해야한다. 2) 하향상산 지식청년과 다른 사람들이 도시에서 만든 각종 조직과 연락소는 즉각 철폐한다. 도시 군중조직은 하향인원의 참여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여전히 도시에 머무르며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호구를 주지 않는다. 불법적 수단으로 도시 호구를 얻은 사람들은 모두 무효이다.

구로 바뀌었다.

그러나 1963년 이후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원래의 복직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인구 급증으로 도시 주민의 취업문제도 날로 심각해졌다. 상하이에서는 농촌으로 돌려보낸 이후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기도 했다. 예컨대 상하이 교외 현의 회향직공을 공장의 임시공으로 채용하고 소득을 농촌 소재 생산대와 4:6으로 나누었는데, 이들을 역공역농(亦工亦農, 노동자 겸 농민)이라 불렀다. 1963년 이후 상하이는 이러한 방식으로 3만여 명의 회향직공을 배치했다. 그러나 이들의 도시호구를 회복시켜주는 것은 없었다. 이렇게 일단 도시와 공장을 떠나면 기존의 철밥그릇과 도시 주민으로서의 권리는 완전히 상실했다. 국가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농촌으로 돌아온 직공들은 이제 노동자에서 농민으로 전환되었고, 자신의 자녀 역시 영원히 지위가 낮은 농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들은 당연히 도시와 공장으로 돌아가고 싶어했고, 복직 약속을 했던 간부들과 문혁 운동에 의탁할 수밖에 없었다. 1967년 초 농촌으로 동원된 18만여 명 중 5~6만 명이 상하이로 돌아왔고, 이들은 “밥을 달라! 복직을 원한다!”고 외쳤다. 또한 상하이 가도로 내려갔던 13만 명은 이후 절반가량은 소집체 소유제의 이농(里弄) 생산조나 가도공장에 들어갔지만, 문혁 중에는 전민소유제나 대집체소유제인 원래 공장단위로의 복귀를 요구했다.

또한 문혁 이전 내부지역 지원으로 파견된 노동자 조직도 있었다. 대공업도시인 상하이는 대량의 인력을 파견해 전국 각지 공업 및 문화건설을 지원했다. 일부 공장이나 상점, 인원, 설비 등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졌고, 1960년대 중반 삼선건설의 계기로 상하이는 인력과 설비의 주요 공급기지가 된다. 그러나 내륙으로 이전한 사람들은 상하이와 내부 지역의 생활수준과 경제공급 상황의 격차를 실감하며 후회했고, 이에 따라 이들은 문혁 중 상하이로 대거 돌아왔다. 이들은 당시 자신들을 내륙으로 보냈던 관리들을 비판하며 당시 조치가 강제적이었다고 하면서 상하이 호구를 돌려주길 요구했다. 계기, 화공, 제1기전(機電) 이 세 국(局)만 보더라도 문혁

이 시작되기 전 2년 동안 내륙으로 지원을 간 노동자는 2만 6천여 명이었고, 67년 초 상하이로 돌아온 노동자는 거의 2만 명에 달했다(李遜 1997).

이렇듯 문혁 이전 다양한 제도적 장벽과 차별로 인해 중국 노동계급은 출신 지역이나 소유제, 단위 규모 등에 따라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분화되어있었고, 주로 행정등급에 따라 자신들의 지위가 결정되는 위계적 제도 구조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다. 지금도 노동계급은 여전히 호구에 따라 도시 노동자와 농민공으로 분리되고, 고용형태에 따라 고정공과 임시공, 기술학교 실습생 노동자나 노무과건노동자 등 각종 차별적인 지위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문혁 시기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권리 쟁취를 위한 노동운동을 주도했던 것처럼, 최근의 노동시위 역시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농민공들의 분노에서 시작됐다.

IV. 임시공 투쟁 - 전홍충을 중심으로

1. 전홍충의 주역과 조직화 과정

사회주의 시기 중국 노동자는 일정한 행정기준에 따라 분리, 등급화되었고 단위에 속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체계에서 배제됐다. 행정 등급에 의해 규정된 신분이 곧 경제적 지위이자 정치적 활동 범위를 의미했기 때문에, 문혁 시기 이러한 등급체계를 깨기 위해 다양한 영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임시공 투쟁은 노동운동의 선봉에 서며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대표적인 조직인 전홍충은 1966년 11월 8일 설립이후 한 달 만에 베이징에서 3천명에 달하는 군중시위를 조직했고 1967년 1월 중순에는 무려 백만명 규모의 시위를 조직한다. 전홍충은 50여만 명 규모의 북경분단 조직원을 두었고, 전국적으로 29개 지방조직을 조직했으며, 그중 원난에 있는 조직만 해도 60만명 규모에 달했다. 당시 쿤밍시, 홍허(紅河), 따리(大理) 지역의 주요 노동

자 조반과 조직이 모두 전홍총에 가입했다(紅草 2010). 전홍총 외에도 상하이의 임시공, 외포공 조직인 홍색공인혁명조반총사령부(紅工司)와 전국적 기치를 내건 전국상산하향 혁명지식청년들의 조직인 홍색조반병단, 진리혁명수호 조반단, 홍색제일선전투대 등이 모두 고용형태가 불안한 비정규직 조반 조직이었다(何蜀 2006).

이들의 조반은 67년 1월 절정을 이루다가 '반혁명경제주의' 라는 죄명으로 신속히 진압되고 사라진다. 2월 12일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통고〉를 발표, “모든 전국적인 조직에 대해 중앙은 일률적으로 승인하지 않으며 이러한 모든 조직을 즉각 취소한다”고 선포한다.²¹⁾ 이어 2월 17일 하루 동안 「임시공, 계약공에 관한 통지(中共中央, 國務院關於臨時工, 合同工, 外包工的通告)」, 「상산하향 지청의 교류, 청원, 상방에 관한 통지(中共中央, 國務院關於處理下鄉上山知識青年外出串連, 請願, 上訪的通知)」, 「내지 파견 직공의 현지에서의 문혁 참가에 관한 긴급통지(中共中央, 國務院關於支援內地和邊疆建設的職工應就地參加文化大革命的緊急通告)」등의 문건을 발표한다(中國人民解放軍, 國防大學黨史黨建政工教研室 1988, 312-313). 수도삼사(首都三司) 등 '중앙문혁 철주먹' 이라 불리는 주류 조반파들은 이러한 반혁명경제주의 조직을 공격하며 선봉에 서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1967년 3월초 전홍총 조직이 진압된 뒤에도 임시공 투쟁은 한동안 지속되었고, 1968년에도 평등한 권리를 위한 임시공들의 조직적인 투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공 투쟁 중 전홍총 조직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그 원인은 우선 이들의 강령성 문건에 있다. 전홍총을 조직한 핵심 지도부는 문혁이 시작되기 이전인 1965년 말 이미 「임시계약공 제도를 논함(論臨時合同工制度)」이라는 강령성 기초문건을 작성했고, 이는 전체 임시공 운동을 위한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둘째, 다른 수많은 임시

21) 「中共中央, 國務院通告」(1967년 2월 12일)(中國人民解放軍, 國防大學黨史黨建政工教研室 1988, 292)

공 투쟁이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된 반면, 전홍충은 수도에서 세를 확보하고 전국적인 조직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임시공 운동 중 자각적으로 독립적 경향을 보였고,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전국세력으로 상층부의 권력투쟁의 틈을 타 이익을 쟁취하려 했다. 이러한 시도는 당시 상당한 세력을 형성했던 상하이 총공사(總工司)도 하지 못한 일이다. 상하이 총공사는 장칭(江青)-장춘차오(張春橋)-왕홍원(王洪文)을 통해 신속하게 관료의 개량 의도에 따라 개편된다. 이후 분화되어 나온 급진적 조직은(예컨대 육체노동자 경진장(耿金章)이 지도하는 제2병단) 2월 역류 과정에서 저우언라이(周恩來)의 공안팀과 린바오(林彪)의 해방군에 의해 섬멸된다(李遜 1996). 셋째, 전홍충의 투쟁은 마오주의를 외친 군중운동이 아니라 임시공 운동에 집중되었고, 기존의 불합리한 제도의 개혁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체제변혁적 성격을 띠는 군중운동이기 때문이다.

전홍충은 임시공 조직으로, 지도부는 대개 출신이 좋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되었다. 전홍충의 두 발기인인 저우무(周牧)와 리보터(李伯特)는 1966년 당시 각각 18세와 20세로, 당시 신분은 초등학교 대리교사와 건축회사의 미장으로 모두 임시공이었다. 전홍충의 조직부장인 마오성넨(毛勝年)은 당시 21세로 도로건설 계약공이었고, 전홍충 전반부에 총지휘를 맡았던 왕전하이(王振海)는 27세로 국가과위과기정보소의 임시 자료원(계약공)이었다. 이중에서 구이양의 노동자 리보터의 이력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17세 때 전교에서 2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출신이 좋지 않아(부친이 국민당), 진학하지 못하고 임시공으로 지낸다. 바위산을 발파하여 채석하는 팀에서 돌을 깨다 “똑같은 노동, 심지어 정식공보다 훨씬 많이 일한다. 더욱 고되고 위험한 일은 모두 우리 임시공들이 한다. 그러나 우리의 임금은 정식공의 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들은 노동보험, 복지, 휴가도 있지만, 우리에게엔 아무 것도 없다”며 문제를 제기한다. 그는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공장 당지부 서기의 공금유용과 임시공 임금의 착복 행위를 적발하여 현장에서 해고당하기도 한다. 하지만 해고 당시 그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없었다. 리보터의 두 번째 일은 화학공장에서 공장건물을 수리하는 일이었지만, 수리 공정이 끝난 뒤엔 또 일이 없었다. 세 번째 일은 공업학교의 대리 교사였는데 월 임금이 24위안이었다. 1년 뒤 ‘편제 초과’라는 이유로 시 교육국으로부터 행정통지를 받고 어떠한 보상이나 사전 통고도 없이 해고당한다. 네 번째엔 가도서비스센터(街道服務站)에서 이수공(泥水工)으로 일하는데, 작업관리 간부가 젊은 여성 임시공에게 추근거리는 것을 참지 못해 간부와 한바탕 싸우고 나온다. 이 여성 임시공은 해고한다는 간부의 협박을 받고 함께 잠자리를 요구받았고, 남편은 일이 없고 몸이 아픈 모친과 3살된 아이가 있었다. 매월 20위안이 안되는 임금으로 사는데, 해고되면 식구 전체가 굶게 될 처지에 있었던 것이다. 다섯 번째로 새로 생긴 구이양시 건축공사에 소개받아 간다. 이 공사의 노동력은 3천여명 규모로 70%가 “출신이 좋지 않은” 중학교 졸업생이었고, 이들을 견습공으로 썼다(紅草 2010). 리보터의 이력을 통해 알 수 있듯 당시 임시공들은 대개 출신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정규직으로 갈 수 없었고 단기간 고되고 힘든 노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

전홍총의 조직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홍총의 지도자 중 한 명인 저우무는 문혁 발발 전인 1965년 12월 리보터와 그의 둘째 형 샤오비화(肖碧華)의 도움으로 「임시계약공 제도를 논함」을 작성한다. 1966년 9월말 저우무는 공작대의 불공평한 대우에 항의하기 위해 북경으로 상방(上訪)을 간다. 그는 초대소에 머무르며 몇 명의 상방 임시공들과 이미 작성된 「임시계약공 제도를 논함」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고, 이를 각 지역으로 배포하여 임시계약공들에게 알리고, 임시공 스스로 단결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권익과 경제적 이익을 쟁취할 것을 다짐한다. 이 글은 1966년 10월 전단으로 만들어지고 대자보 형식으로 베이징, 상하이, 구이양, 창사, 창춘 등의 주요 도시에 배포된다. 이 문장을 매개로 각 지역의 임시계약공들은 모두 단결하여 베이징에 자신들의 조직을 만든다. 전단서가 66년 10월 6일 공인(工人)체육관에서 공개적으로 배포된 이후, 10월 6일 오후부터 전국 각지에서

베이징으로 올라온 임시계약공들과 베이징 현지 임시계약공들이 전단에 있는 주소를 보고 이들을 찾아왔고, 저우무와 양정(楊政)은 방문자들을 접대하느라 쉴 틈이 없었다고 회고한다(方圓 2006). 한달 뒤인 11월 8일 이들은 전홍충의 성립을 선포했고²²⁾ 전홍충 조직의 인정을 받기 위해 전총 회의실에서 연좌시위를 벌였고, 열흘 동안 직접행동에 참여한 노동자가 50여명에서 3백여명으로 늘어난다. 1966년 12월 8일 전홍충은 제2차 노동자 연좌시위로 전총을 압박해 전홍충의 합법성을 인정하게 만든 다음, 즉각 임시공을 위한 실제적 이익을 쟁취하자는 투쟁을 시작한다. 또한 각 지역 임시공의 상황을 수집, 임시계약공 제도 개혁을 위한 초안을 연구한다.²³⁾

그러나 전총과 노동부는 또 다시 약속을 어기고 개혁방안에 관한 회의를 3차례 연기한다. 이에 따라 12월 25일 전홍충은 수도 분단의 5-6만 명의 사람을 동원해 천안문광장에서 집회를 준비하고, 계획에 따라 노동부를 점령하고 봉쇄해버린다. 12월 27일 전홍충은 전총의 건물을 점령하고 업무를 접수 관리한다. 수천만 임시공들의 공통된 바램은 임시계약공제도 개혁이라는 실제적인 요구였다. 1967년 1월 2일 전홍충, 노동부, 전총이 공동으로 체결한 “연합통고”는 바로 수천만 임시공의 요구라는 압박 속에서 실현된

22) 전국홍색노동자조반총단(전홍충)은 1966년 11월 8일 베이징 西直門內大街 西章胡同의 야금부 초대소 2층 243호에서 설립된다. 영도핵심은 5인소조로 지도부는 3기까지 구성된다. 제1기: 王振海(베이징), 周牧(구이양), 羅運泉(창사), 廖閣夫(창사), 郝維奇(베이징). 제2기: 王振海(베이징), 周牧(구이양), 李晉瑄(베이징), 金展云(베이징), 郝維奇(베이징). 제3기: 周牧(구이양), 楊政(창사), 李晉瑄(베이징), 金展云(베이징), 郝維奇(베이징).

23) 저우무는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나는(周牧) 12월 10일부터 일상 업무 처리 외에도 매일 밤 임시계약공 제도 개혁 방안의 초안을 잡고, 중요한 전보나 서신에 회답했다. 전보는 주로 각 지역 분단의 지시요청서였고, 서신은 주로 각 지역 임시계약공의 해고, 박해, 착취 상황에 관한 보고였다. 당시 각 지역에서 투서한 편지는 매일 2천여통에 달했고 나의 비서 위홍주(余洪珠)는 정신이 일떨떨할 정도로 하루 종일 편지를 보았다. 이러한 서신을 통해 임시계약공의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심지어는 해고된 뒤 노동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았다. …… 12월 20일 무렵 각 지역에서 올라온 전보나 서신이 갈수록 급증해 편지를 뜯어보고 분류하는데 5명이 필요했다. 매일 몇 천통 정도가 아니라 몇 포대 수준이었다. 허나 내용은 대체로 비슷해서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져간다는 것이었다.”(方圓 2006).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연합통고 체결의 또 다른 배경으로 장칭이 전홍총 대표를 만난 뒤 상황이 전홍총에 유리하게 변했다는 점을 들지 않을 수 없다. 12월 26일 전국 임시공, 외포공 조반조직대표가 장칭을 만나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했을 때, 장칭은 1966년 6월 1일 이후 해고자는 원 단위로 복귀하고 임금도 지급해줘야 한다고 건의한다(王年一 2009). 이후 전홍총은 1월 8일 국제기자회견을 개최했고, 1월 16일에는 북경공인체육관에서 만인대회를 개최한다.

그러나 장칭이 수도 1,2,3司 홍위병에게 전홍총을 공격하도록 종용한 뒤(67년 1월 23일, 123사건이라 불림) 상황이 전홍총에 불리하게 돌아간다. 이에 전홍총은 상황 변화에 따라 원래 계획을 수정, 1월 27일 전총과 노동부에서 철수, 전국 총부를 광저우로 옮기고 5월 1일 광저우에서 2차 전국대표대회를 앞당겨 개최하려 한다. 또한 공개적인 진압을 당하면 지하로 숨어 원난, 구이저우, 쓰촨에서 근거지를 세운다는 계획도 세워둔다. 그러나 2월 17일 전홍총, 노동부, 전총이 1967년 1월 2일 발표했던 연합통고는 불법으로 취소되고 전홍총과 각 지역의 분단은 불법단체로 금지된다. 중앙문혁은 전홍총 조직을 이용해 노동인사부를 공격하려 했지만, 전홍총이 주자와 적발보다는 노동자의 이익을 쟁취하려 시도했고, 무엇보다 전국적인 대중조직의 출현이 갖는 위험성을 감지하며 이들에 대한 잔혹한 진압을 가한 것이다(龔小夏 1996).

2. 전홍총의 주장: 차별적 제도의 철폐

1964년 말부터 저우무와 리보터는 관방의 통계를 수집하기 시작, ‘두 개의 노동제도’ 관련 자료를 모아 「임시계약공 제도를 논함」을 작성한다. 이들은 기업 안에서 차별과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왔던 임시공과 계약공들을 조직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임시계약공 제도 취소, 차별 철폐, 정식공과 평등한 임금과 복지대우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우선 생존권을 주장하며 “임시계약공 제도는 임시계약공의 생존

권과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임시계약공은 근무연한(工齡)도 없고 복지, 노동보험도 없으며 정식공과 동일노동을 하지만 동일임금을 받지 못한다. 차별과 착취를 받는다. 한번 해고되면 일자리를 잃게 되어 처자식과 가족들의 생존도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노동계급에 대한 기존의 차별적 제도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며, 이러한 제도차별의 원인을 당내 주자파에게 돌린다. “국가의 발전과 사회의 필요를 위해 안정적인 직업을 희생할 순 있지만 안정적인 소득은 희생할 수 없다. 이들 노동자들은 실업 이후 소득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 임시계약공과 정식공은 같은 노동계급의 일원인데, 왜 이러한 경제소득과 정치대우의 불평등이 존재하는가? 임시계약공과 정식공은 단지 일자리의 유동성과 고정의 차이일 뿐 인격과 존엄의 차이일 수 없다. 당내 주자파들은 ‘두 가지 노동제도’를 이용하여 노동계급 사이의 차별을 만들고 노동계급을 분화, 와해시키려 한다. 노동계급을 대립적인 두 개 계층으로 분열시키고 소수의 노동귀족을 자신의 통치 기반으로 삼는다. 그들은 노동계급과 새로운 독점 자산계급의 갈등을 노동계급 내부의 갈등으로 바꾼다. 주자파는 신생 독점자산계급의 정치대표이다.”

또한 이들은 헌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권리를 근거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요구하며,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헌법 제1조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한 인민민주국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91조에서 98조까지 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7년 동안 영도계급인 노동계급 중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먹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 17년 동안 주자파는 특권을 향유하고 사치가 극에 달했다. 그들은 ‘전민소유제’라는 미명아래 전 인민의 생산수단을 점유 혹은 독점해왔다. 전민소유제는 이미 독점 자산계급소유제로 변했다.” “오늘의 정식공이 내일의 임시계약공이다. 노동계급과 신생 독점자산계급의 갈등은 오늘날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이다. 신생 독점자산 계급은 무산계급 전정을 자산계급 전정

으로 바꾸려 한다. 사회주의 국가를 사회파시스트주의 국가로 바꾸려 한다. 임시계약공제도가 사회주의 노동제도라면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어디 있는가?” 이처럼 이들은 중국 사회주의 헌법에서의 보장을 근거로 차별적인 임시공제도를 비판한다.

이들의 요구를 수용한 구체적인 조항은 1967년 1월 2일 전홍총이 국가노동부, 전국총공회를 압박해 공동 체결한 「삼가연합통고(三家聯合通告)」에 잘 나타나 있다(中共研究雜誌社編輯部 1973, 38, 89, 94). 「연합통고」의 주요 내용은 첫째, 계약공, 임시공, 외포공 등의 무산계급 문화대혁명 참가와 생산 참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두 해고하지 않는다, 둘째, 1966년 6월 1일 이후 해고된 계약공, 임시공, 외포공은 원래 단위로 복직하여 운동과 생산에 참여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받는다, 셋째, 자산계급의 반운동노선에 의해 핍박받은 계약공, 임시공, 외포공은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손실을 배상하며 적절한 배치를 해준다 등이다. 중국은 이 「연합통고」의 조항에 대해 장칭이 12월 26일 밤 구두로 얘기한 세 가지 조항의 내용이라고 강조하며 전홍총의 배후에 장칭이 있었음을 강조하지만(王年一 2009, 156, 157), 이는 문혁이 끝난 뒤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며, 역사적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다.

12월 26일 밤 전홍총 대표들이 먼저 중앙에 임시계약공의 권리를 보장하는 문건 채택을 건의했고, 장칭은 전홍총 대표들에게 현장에서 초안을 잡으라고 제안한다. 전홍총 대표들은 간단한 회의를 거쳐 전홍총 5인소조 중 저우무가 그 내용을 집필한다. 그는 전홍총과 전총, 노동부가 합의했던 ‘회담 기요’를 참고로 문건을 작성한다. 초안의 ‘세 가지 조항’은 즉각 장칭에게 제출됐고, 장칭은 내용을 보고 난 뒤 천보다, Kang성, 장춘차오, 야오원위안 등에게 회람시킨다. 장칭은 저우무가 작성한 ‘세 가지 조항’ 중 제3조 “자산계급 반동노선의 핍박을 받은 임시계약공에겐 명예를 회복해주고 손실을 배상한다”는 내용은 중앙군위, 총정에서 복권 명령을 내린 〈긴급지시〉와 〈16조〉 관련 내용과 비슷하니,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겠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저우무가 작성한 ‘세 가지 조항’ 중 제3조를 “현행 반혁명분자 예

외”로 수정한다(方圓 1997). 이렇게 세 가지 조항은 전홍총 대표가 초안을 작성하고 장칭의 수정 지시를 거쳐 나오게 된다.

전홍총은 자체 강령 뿐 아니라 독자적인 행동계획도 갖고 있었다. 첫째, 1967년 1월 이전에 각지에 기층조직을 만들고 아래에서 위로 대표를 선출해 1월에 전국대표대회를 소집한다. 전국 총부를 건립하고 중앙의 승인을 요구한다. 둘째, 1967년 2월에 ‘임시계약공제도’ 개혁 방안을 제기하고 법에 따라 중앙의 인가를 받는다. 셋째, 1967년 5·1노동절에 노동임금제도, 노동보험복지제도 개혁 방안을 제출하고 ‘임시계약공제도’ 개혁의 부족한 부분을 한층 더 확대, 노동자의 기업자주권 문제를 제기한다. 넷째, 운동 후반(당시 전홍총은 1967년 말로 예상)에 전홍총의 성격을 상설 노조 성격으로 바꾸고 전총에서 독립된 “전국노동자연합회”로 명명한다. 운동 과정에서 임시로 조직된 조반조직인 전홍총을 운동이 끝난 뒤에 상설 독립노조조직으로 개편한다는 것이었다.

전홍총은 1967년 1월 5일에서 1월 11일까지 「연합통고」를 결정, 대중들에게 알리기로 한다. 그러나 이 통고는 당시 마오의 문혁전략에 맞지 않아 2월 17일 중공중앙, 국무원에 의해 공식적으로 취소된다. 전홍총 조직은 결국 불법적인 조직으로 취소되고 전홍총의 책임자인 저우무는 20년, 리보터는 10년의 형량을 선고받은 것 외에 나머지 지도부 모두 10년형 이상을 선고받는다. 그러나 전홍총 운동은 이후 임시공 투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3. 전홍총 투쟁의 의미와 한계

전홍총의 성격이나 활동의 배경을 둘러싼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홍총의 이상과 목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이라는 노동자의 평등이었다. 이는 당시 노동자를 분리 통치하던 중국체제 구조에 대한 도전이었고 고로 통치자들은 이러한 조직의 위험성을 간파하여 신속하게 진압한다. 전홍총은 중앙문혁의 구상과는 달리 일정한 독립성을 유지하려 했다. 문혁이 시작되기 이전인 1965년에 이미 강령성 문건을 준비했고, 마오의 전략적

배치에 따라 지방 당정의 권력을 빼앗지 않았으며²⁴⁾ 자신의 계획에 따라 노동부를 점령하고 조직적, 계획적으로 ‘국제기자회견’ (1967년 1월 8일)을 개최했다.²⁵⁾ 1966년 12월 26일 중앙문혁의 지도를 받아들였지만 면중복배였고, 67년 1월 노동부, 전총, 전홍총이 함께 서명한 연합통고를 중앙의 보류 지침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인쇄·배포하여 전국 각지의 수천만의 임시 공들에게 거대한 파란을 일으켰다.²⁶⁾ 이들이 갖는 위협성은 ‘아래에서 위로’의 대중 조직성과 민주성에 있었다. 전홍총 지도부는 이후 상층에서 파견한 몇 명의 ‘지도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중운동을 통해 아래에서 위로

24) 66년 12월말에서 67년 초까지 마오의 전략적 배치는 탈권이었다. 66년 12월 26일 〈人民日報〉사설(迎接工礦企業文化大革命的新高潮)과 67년 원단의 〈人民日報〉〈紅旗〉사설(把無產階級文化大革命進行到底)은 문혁이 탈권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전홍총 대표와 장칭이 만난 이후 장칭은 저우무와 전화 통화로 전홍총에게 전총의 권력을 탈취하라고 명확히 밝힌다. 전총의 기관보 〈工人日報〉의 조반파들 역시 전홍총에게 자신들과 연합하여 전총의 권력을 탈취하자고 요구한다. 전홍총의 승낙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은 단독으로 〈工人日報〉의 권력을 탈취하고 〈工人造反報〉로 이름을 바꾼다. 전홍총이 탈권에 주저하는 동안 중앙문혁연락원인 샤오이하이(邵一海)는 저우무를 압박하면서 “만약 전홍총이 늦게 행동하여 전총 보수파가 기회를 선점하고 전총의 대권을 탈취한다면 중앙문혁은 피동적이 되고 전홍총은 역사적 지위를 잃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한다.

25) 이 기자회견은 ‘국제좌파좌담회’ 혹은 ‘오대주(五大洲) 혁명좌파 좌담회’라 불리며, 1967년 1월 8일 베이징 시위안(西苑)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전홍총 5인소조 중의 한 사람인 진잔원(金展雲)은 임시공 출신이 아니라 중앙방송국 대외부의 폴란드어 고급번역사 출신으로, 전홍총의 대외업무를 맡고 있었다. 전홍총은 중국의 독립적인 노동운동과 노동조직의 현황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기 위해 기자회견을 준비한다. 전홍총은 중앙문혁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백여 명의 각국 외교관, 북경주재 외국 기자, 북경주재 좌파조직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 라오닝 대표와 귀이저우 대표가 현지 임시계약공의 비참한 현실을 소개하였고, 전홍총 대표들의 발언과 외국대표들의 발언이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저우언라이 총리는 저우무에게 전화를 걸어 그를 맹렬히 비판했고, 그 뒤로 전홍총은 중앙문혁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方圓 1997).

26) 1967년 1월 4일 중앙문혁은 전홍총에 연락원 샤오이하이를 파견해 저우무에게 〈삼가연합통고〉의 발표를 늦출 것을 전달한다. 그날 오전 10시 장칭은 저우무에게 전화하여 발표 연기를 똑같이 지시하였고, 당일 오전 11시엔 치번위(戚本禹)가 전홍총 5인소조 리진쉬안(李晉瑄)에게 전화해 발표 연기를 요구한다. 1월 5일 〈삼가연합통고〉가 인쇄된 뒤 샤오이하이는 전홍총 총부회의에 〈삼가연합통고〉를 소각하라는 중앙문혁의 명령을 공식적으로 전달한다. 또한 장칭은 다시 한번 주목에게 전화하여 〈삼가연합통고〉소각은 마오의 지시라고 알리면서 “한 치의 어김도 없이 집행해야 한다. 위대한 지도자 마오주석의 전략적 배치에 따라 탈권하라”고 말한다(方圓 1997).

의 과정에서 선출된 보통 노동자들이었다. 집단회의를 통해 논의하고 안건은 무기명투표를 통해 결정했으며, 특히 귀주분부의 활동은 더욱 민주적이었다(紅草 2010).

무엇보다 전홍총의 위력과 영향력은 ‘조직된 힘’에 있었다. 전국 규모의 노동자 조직화의 위험성을 인식한 중앙은 신속하게 이들을 진압하고 불법화하지만, 이후 다른 지역에도 오랫동안 영향을 미친다. 우선 비슷한 시기 상하이의 임시공 조직도 전홍총과 비슷한 요구를 한다. 상하이 공총사 다음 가는 제2노동자 군중조직인 ‘상하이 홍색공인조반총사령부’(紅工司, 처음에는 ‘상하이 임시공조반총사령부’라 불림)는 40여만 명 규모의 군중을 확보한 조직으로 참가자는 주로 임시공, 외포공, 계약공들이었다. 이들은 당시 낮은 대우를 받으며 온갖 더럽고 힘든 일을 도맡아했으나, 의료보장 등의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하고 중간 고리에서 착취당하는 상하이의 ‘임시 공민’이었다. 이들은 정치적 차별과 경제적 착취 아래 인간으로써의 존엄을 받지 못하고 정부에 대해 강한 불만과 원망을 품고 있었다. 따라서 홍공사의 조반 목적은 다른 대중조직과 달랐다. 초기 홍위병처럼 이상과 격정을 품고 마오쩌둥이 주도하는 관방 문혁에 뛰어들지도 않았고, 후기 공총사 등과 같은 조직처럼 각 지방에서의 권력탈취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1966년 11월 22일 이들은 중공 상하이 시위, 중공중앙 화동국, 상하이시 노동국의 대표를 압박해 자신들의 6개조 요구에 동의하게 한다. 내용에는 혁명조직으로 승인해달라는 것 외에도 임시공, 외포공 제도의 취소, 향후 임시공과 외포공 해직 금지 요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6개조 요구의 제기는 상하이에서의 경제주의 바람의 발단이 된다.²⁷⁾ 이들의 요구는 임시공, 계약

27) 6개조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상해시 임시공, 외포공 혁명조반총사령부를 합법적인 혁명조직으로 승인하라. 2) 오늘의 행동(대회 개최)이 혁명적인 것임을 승인하라. 3) 임시공, 외포공 등 불합리한 제도를 취소하라(군중 의견이 중앙에 반영되도록 적극 지지하고 중앙의 지시를 요청하라) 4) 오늘부터 어떠한 구실로도 임시공과 외포공을 퇴직시킬 수 없다.(黑六類제외) 5) 시 전체의 임시공, 외포공 대회를 개최하여 자산계급 반동노선을 포격

공 등 모든 차별적 제도를 뒤엎고 생존권과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쟁취하는 것이었다.

내몽골 지역에도 뚜렷한 목표를 갖고 업종과 지역을 초월한 조직을 구성하려는 많은 활동들이 있었다. 상산하향 지청, 임시계약공, 퇴역 군인, 농촌 하방 노동자, 철도노동자, 석유 노동자, 3선 군수공업 기업 등의 8대 조직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업종별 특징을 호소력으로 삼아 이들 라인에 속해있는 군중들이 받고 있는 (소위 수정주의 노선이 초래한) 불공정한 대우를 강조하며 관심을 끌었다. 1966년 겨울부터 1967년 봄까지 몇 달간 후허하오터 지역 당정기관이 모두 마비되고 공안계통도 두 파벌로 나뉘어 각자 따로 안건을 처리하는 정세 속에서 독립적으로 조직화를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1967년 설 무렵 이들 8대 조직이 베이징에 전국 총부 설립을 준비하려할 때 장칭과 저우언라이 등이 단호히 불법임을 선포하고 이들 조직의 우두머리를 체포했다. 그러나 이들 조반파들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각 지역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조직적 투쟁을 지속시켰다.²⁸⁾

또한 서남부 지역과 전국 곳곳에서도 임시공의 정규직 전환(轉正), 복직,

한다! 6) 문화혁명운동 중 이미 퇴직당한 임시공와 외포동에 대해서 2주일 내로 복직시키고 일자리를 배치하라.(黑六類제외) 沈福祥, 『我的文革歲月』 <http://blog.boxun.com/hero/shenfx/>

28) 1969년 늦여름 스킵이거우(石拐溝) 탄광의 파업물결이 대표적이다. 문혁 전 중앙에서 내려온 문건(탄광 노동자의 초과임금 상승방안, 갱내 작업장 월임금 6위안, 갱외 4위안 인상)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탄광 전체 5만여명의 직공들이 혁명위에 압력을 행사, 재지급을 요구한 사건이다. 그러나 누적 액수가 워낙 커서 광무국(鑛務局) 혁명위에서 지급하지 못하자 장기간 파업물결이 지속된다. 이러한 쟁점을 두고 두 파벌에서는 함께 손을 잡고 단결하여 파업을 지속해나간다. 이러한 압력 속에 결국 혁명위 주임 양슈(楊秀, 영도간부)와 부주임 휘화(呂華, 노동자 조반파 대표)가 재지급에 동의하지만, 69년말 내몽골에 대한 군관이 실시되자 70년 봄 군관위는 혁명위에 대한 급작스런 습격을 단행하며 양슈와 휘화를 체포한다. 군관위는 당중앙을 대표하여 노동쟁의의 성격을 “건국이래 최대의 경제주의의 나쁜 풍조다. 그 성격이 매우 심각한 반혁명사건이다”라고 규정한다(程惕潔 2006, 5-6).

해고기간의 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 물결이 일어났다. 1968년 초에도 각 지역마다 경제적 처우의 개선을 요구하는 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²⁹⁾ 광저우 인쇄 관련 홍색노동자혁명조반 연합총부에서 발행했던 〈勞動戰報〉에는 68년 2월 3일 계약공제도를 비판하는 글이 실렸는데, 이러한 내용은 전홍총이 반동조직으로 금지된 지 1년이나 지난 뒤에 발표된 것이었다.³⁰⁾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문혁 초기에는 일부 지역에서 가시적 성과를 얻기도 했지만 공식적인 합법성을 얻어내진 못한다. 특히 1968년 1월 18일 중앙에서 경제주의를 비판하는 통지를 발표하면서, 중앙의 새로운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임시공, 계약공, 외포공들의 정규직 전환을 일률적으로 금지한다.³¹⁾

그러나 9차 당대회 이후 문혁 운동이 질서의 단계로 들어가면서 중국 정부는 점진적으로 임시공 제도의 개선 조치를 내놓는다. 1971년 11월 30일 국무원에서는 임시공과 윤환공(대체 노동자) 제도 개혁을 발표한다. 당시 전

29) 지도부에선 당시 정세 분석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67년 1월 11일 ‘경제주의 반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한 이후 전국의 혁명 직공들은 마오사상의 위대한 기치를 들고 마오의 위대한 전략적 배치에 따라 계급의 적들이 일으킨 반혁명경제주의의 풍조를 격퇴하고 ‘혁명 매진, 생산촉진’의 위대한 방침을 견고히 관철시켜 혁명과 생산의 커다란 승리를 거두었다. 현재 전국적 정세가 매우 좋지만 계급의 적들은 소멸을 달가와하지 않는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일부 당권파와 사회의 잡귀신(牛鬼蛇神)들이 결탁하여 각종 구실로 다시 소수를 선동하여 반혁명경제주의라는 나쁜 풍조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시장에는 또 다시 일부 투기 전매 활동이 나타나 문혁과 사회주의 건설사업의 승리의 방해를 피하고 있다.” 中共中央, 國務院, 中央軍委, 中央文革「關於進一步打擊反革命經濟主義和投機倒把活動的通知」(1968년 1월 18일)(中共研究雜誌社編輯部 1973, 107-108).

30) 이 글의 제목은 “現有的合同工制度是反毛澤東思想的大毒草”이다. 이 글에선 계약공 같은 고용제도가 소련수정주의에서 온 것이라고 지적하며, 계약이 공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근본적으로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글에서는 “이는 적나라한 고용노동제도로 이러한 제도 아래 갑방은 돈을 지급하고 을방은 노동을 판다. 이는 가장 값싸고 편리한 노동제도이다. 이는 ‘자유노동력시장’과 자본주의 복귀에 대문을 열어준다. 계약공제도는 전형적인 수정주의 산물이다”라고 하면서, “사회주의제도에서 노동자는 기업의 주인이지만, 계약노동제도는 노동자를 억압과 착취를 받는 지위에 놓이게 한다”라고 주장한다(林偉然 1996, 115-116).

31) 「關於進一步經濟主義和投機倒把活動的通知」(1968년 1월 18일)

국의 임시공, 율환공 규모는 9백여만명 정도였는데, 이중 상시적으로 필요한 직종의 임시공의 경우 역사적 이력이 깨끗하고 정치적 태도(表現)가 좋으며 연령과 건강상태가 적합한 경우에는 군중들의 평가를 거쳐 고정공으로 전환해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절적 생산이 필요한 경우 임시공을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기간 동안 임시공에 대한 정치적 대우와 식량지급, 노동보호용품 지급은 고정공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고,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었을 경우 고정공의 노동보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발표했다(房維中 1984, 487). 이러한 중앙의 방침에 따라 상하이시의 경우 1971년 12월 15일 임시공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1971년에서 1975년까지 전민소유제 단위에 소속된 임시공 14.45만 명을 차례대로 고정공으로 전환시킨다.³²⁾ 그러나 이는 전민소유제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고정공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대개 임금에는 변동이 없었다.

이러한 정책으로 볼 때 문혁 중반이후 중국 정부는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고 이들의 정치적 지위에 대한 점진적인 개선 조치를 채택하지만, 여전히 정규직과의 경제적 차별을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문혁이라는 정치적 분위기에서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수정주의 제도의 상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를 개혁해야한다는 정치적 이상과 함께 국가 경제와 재정 상황을 동시에 고려하여 내려진 조치라 하겠다.

전홍총은 공식적인 활동기간이 1966년 말에서 67년 초까지 매우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노동자 투쟁 과정에서 조직된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며 이후 각 지역 노동투쟁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불합리한 기존 제도에 대한 개혁을 요구했던 이러한 임시공들의 지속적인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한 이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매우 느리지만 꾸준히 내놓았던 것으로 보인다.

32) 上海市地方志辦公室 <http://www.shtong.gov.cn>.

V. 임시공 투쟁의 역사적 유산

전홍충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 평가는 이들의 투쟁은 어디까지나 경제적 집단이익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장칭 등 문혁과의 배후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 운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임시공들은 문혁 초기 가장 먼저 횡적으로 연합하는 지역적 혹은 전국적인 조직을 기획했다. 이는 기존에 호구와 소속 단위로 분리 통제되는 구조적 제한을 깨고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쟁취하려는 시도였다. 중국 지도자들은 단위나 업종, 지역을 초월한 이러한 운동방식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으며, 여전히 소속 단위를 중심으로 한 세포적, 수직적 통제 구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중국 정부는 전홍충과 같이 횡적 연대를 통해 기존의 수직분리 구조를 타파하려는 전국적 조직에 대해서는 단호히 해산조치를 내리고 신속하게 이들 조직을 ‘반동조직’으로 선포한다.³³⁾ 대중적인 조반 운동 역시 이러한 구조 틀 내로 제한되고 점차 질서있는 조반으로 정리되었다.

따라서 문혁 초기에는 대중의 폭발적 에너지가 터져 나와 단위나 업종을 초월한 군중조직이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지만, 중앙에서 이러한 조직이 갖

33) 中共中央, 僑國務院 「關於文革期間對臨時工, 合同工, 輪換工, 外包工處理問題的通告」 (1967년 2월 17일)(中共研究雜誌社編輯部 1973, 94). 이 문건에서는 전홍충 조직을 불법화하는 동시에, 임시공들의 지역이나 단위에서의 운동 참여는 허용하고 있다. 1) 전홍충, 노동부, 전총이 1967년 1월 2일 발표한 연합통고는 불법으로 취소한다. 2) 임시공, 계약공, 대체노동자, 파견노동자 등의 제도는 합리적인 부분도 있고 불합리적이고 잘못된 부분도 있어 현재 중앙에서 연구 중이다. 개별 상황에 맞게 개혁을 준비중에 있다. 중앙에서 새로운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기존의 방법에 따라 진행한다. 3) 각 기업의 임시공, 계약공, 대체노동자, 파견노동자는 정규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향유하며 문혁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4) 문혁 초기 간부에게 의견을 제시해 반혁명으로 공격받았던 임시공, 계약공, 대체노동자, 파견노동자는 복권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해고된 경우 원래의 생산단위로 되돌아가고 원래 계약에 따라 처리하며 착복된 임금은 재지급해야 한다. 6) 임시공, 계약공, 대체노동자, 파견노동자는 단독적인 조직을 설립할 필요가 없다. 전홍충과 각 지역의 분단은 취소해야 한다. 이 조직에 참여했던 혁명군중들은 해당 기업과 단위, 지역의 혁명군중조직에 참가할 수 있다.

는 잠재적 위험성을 인식하고 난 뒤로는 활동 범위를 제한받는다. 즉 문혁을 지속시킬 필요성 때문에 대중혁명을 인정하고 지지하지만, 혁명의 조직 형식은 지역과 단위라는 일정한 틀 내로 묶어둔 것이다. 1967년 하반기 마오쩌둥은 군중조직은 “조직 라인에 따라, 업종에 따라, 팀별로 혁명의 대연합을 실행한다(按照系統, 按照行業, 按照班級, 實行革命的大聯合)”는 원칙에 따라 조직되어야 한다고 발표한다(中共中央辦公廳, 國務院秘書廳文化大革命聯合接待室編印 1967).³⁴⁾ 또한 중국 정부는 1967년 12월 혁명의 구역을 자신의 지역 내로 제한하는 ‘현지에서 혁명한다(就地鬧革命)’를 발표하고,³⁵⁾ 1968년 또 다시 ‘부문에 귀속시켜 혁명한다(歸口鬧革命)’라는 구호를 제기하면서 단위별로 대연합을 실현해야 함을 강조한다.³⁶⁾ 이렇듯 단위 연대에 기초한 군중조직을 무효화함으로써 중앙은 초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원상태의 수직통제구조를 회복할 수 있었다. 이후로 대중운동은 자신이 소속된 사대(社隊)나 단위 안이라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활동하는 ‘통제된 운동’을 벌였고, 혁명이 규범화되고 대중이 권력의 핵심에서부터 주변으로 밀려나면서 점차 혁명에 대한 흥미를 잃어갔다.

이러한 ‘단위정치’로 인한 노동계급 분열의 역사는 개혁 이후에도 깨지지 않고 지속되어 나타났다.³⁷⁾ 시장화개혁으로 노동력 이주에 대한 통제가 완화되어 농민공이라는 새로운 新노동계급이 등장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호구라는 행정 신분 때문에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34) 마오쩌둥은 “혁명의 조직형식은 혁명 투쟁의 필요에 따라야만 한다. 만약 조직형식이 투쟁의 필요에 적합하지 않는다면 이 조직형식을 취소해야만 한다”는 지시를 내린다(人民日報 1969/10/19).

35) 「中共 ‘四川省革命委員會籌備小組’ 及中共成都軍區限令所有外出人員返回本地區 ‘就地鬧革命’ 的聯合通告」(1967년 12월 15일)(中共研究雜誌社編輯部 1973, 142).

36) 周恩來一九六七年十一月份對鐵路系統講話主要精神匯編, <http://www.wengewang.org/read.php?id=25385>.

37) 리칭관은 지역과 단위를 기반으로 한 중국 노동계급의 집단행동을 ‘celluar activism(세포 행동주의)’라고 개념화한다(Lee 2006).

위해 조직을 만들 자유도 허용되지 않았다. 문혁 시기 임시공, 계약공 등 비정규직 조반파에 대한 단위 내 정규직 노동자 조반파의 공격이 이어졌던 것처럼, 현재 지역 농민공들의 시위에 대해 현지 주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무장한다. 시장화에 따라 노동계급으로서의 계급의식이 고조되는 동시에 행정적 분리와 문화적 차이에 따른(혹은 용이한 통제를 위해 이러한 차이를 존속시키는) ‘노동계급 내부의 계급분열’ 역시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전홍충의 요구가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폄하하면서 이들 조직이 갖는 독립적인 성격을 부정한다. 현 정부도 최근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파업의 성격을 저임금과 소득격차, 열악한 노동조건에 불만을 품은 ‘경제적 파업’으로 규정짓고 있다.³⁸⁾ 또한 이러한 군체성 사건은 여전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발생하는 고립적 사건의 형식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전체 국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운동이 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다.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사회적 동요 발생을 완전히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于建嶸 2010). 그러나 임금인상 요구는 그 자체로 경제적 투쟁 이상의 의미와 효과가 있다. 미숙련·반숙련 노동자들의 단순 반복적인 노동에 기초한 자본축적구조와 노동자들의 복종과 순응을 전제로 한 작업장 통제체제에서 발생한 집단화된 임금인상요구는 그 자체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이는 기존의 분배방식과 내용에 대한 저항이자 노동정치의 주체로서 노동자들의 권리선언적 성격을 내포하는 것으로 경제주의적 이익 이상의 정치적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조직화 과정이 중요하다. 즉 노동자들이 조직되어 투쟁에 나선 것이 아니라 투쟁과정에서 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이다. 조직화 과정을 통해 노동자 단결의 힘을 확인하고 파업이 정당한 권리임을 공유해나

38) “工潮透視,” 『南風窗』 2010年 第13期.

가는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혁 이전 대중은 고립되고 정치에 있어 수동적인 요소였지만, 문혁이라는 정치 환경의 변화 속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만남으로써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된다. 문혁이 갖는 독단적이고 전제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문혁이라는 공식 담론이 평등이나 시민권 등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고양시켰고, 정치적 권력의 각축이 벌어지는 환경을 재구성한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의 만남 자체는 이들의 정치적 관심을 변화시켰고, 점차 계급적 동일성(identity)을 자각해나가며 차별적 제도에 저항하는 데로까지 이르게 만들었다. 요컨대 문혁이라는 무질서한 상황은 역설적으로 각 지역과 단위 내에 ‘고립’된 노동주체를 전국 규모로 ‘교류’ 시킴으로써 공동의 집단행동을 벌이게 만들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임시공들은 점차 대중적 각성의 힘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획기적인 전환은 이후 노동자들의 계급적 각성이나 정체성 형성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홍총은 기존 정규직 노동자와의 동등한 권리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평등’의 가치를, 기존 정치체제의 틀 밖에서 독립적인 행동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자유’의 가치를 모두 갖는다. 이는 현 시기 노동자 투쟁의 이데올로기적 기반이 되는 사회주의적 노동운동과 자유주의적 노동운동 두 가지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자원이 되고 있다. (전체화된 이미지로 남아있는) 문혁이라는 시대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전홍총의 강령에는 특권과 착취에 반대하고 민주, 자유, 평등을 쟁취하자는 사상이 담겨져 있다. 당시 성무원의 주역이었던 양시광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건국 이후 17년 동안 90%의 고급 간부로 구성된 특권계급이 생겼다. 이것이 바로 관료주의자 계급이다. 이러한 홍색자본가계급은 이미 역사의 전진을 방해하는 부패한 계급이 되었다. 그들과 광대한 인민의 관계는 이미 영도-피영도에서 통치-피통치, 착취-피착취 관계로 변했다. 평등한 공공혁명의 관계는 억압-피억압 관계로 바뀌었다. 홍색자본가 계급의 특권과 고임금은 광대한 인민 군중에 대한 압박과 착취의 기초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³⁹⁾ 양시광의 이러한 분석은

사실 오늘날 중국 사회에 더 잘 들어맞는다. 만일 오늘날 중국의 사회변혁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서는 이들이 있다면 바로 문혁 시기 임시공의 후손인 농민공들이 아닐까.

[투 고 일 : 2011년12월21일]

[심사완료일 : 2012년01월26일]

[게재확정일 : 2012년01월26일]

39) 徐友漁, “異端思潮和紅衛兵的思想轉向,” 『民主中華』(香港: 遠東事務評論社, 1989), pp.31-50.

참고문헌

- 모리스 마이스너 지음, 김수영 옮김. 2004.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 서울: 이산.
- 宇野重昭 외, 이재선 옮김. 1988. 『중화인민공화국: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서울: 학민사.
- 龔小夏. 1996. “文革及毛澤東的偽急進主義意識形態.” 『北京之春』 第42期.
- 金春明. 1998. “‘兩個文革說’與‘文化大革命’的定性研究.” 『中共黨史研究』 第2期.
- 唐少傑. 1995. “清華井岡山兵團的興衰.” 『二十一世紀雙月刊』
- 董國強. 2009. “張春橋宦海沉浮與‘文革’悖論.” 『書屋』 第2期.
- 馬戎, 龍山 主編. 2000. 『中國農村教育問題研究』. 福建教育出版社.
- 潘鳴嘯(Michel Bonnin). 2006. “上山下鄉運動再研究: 引起爭議的幾個問題.” 문학 40주년 국제
심포지엄 자료집. Columbia University.
- 方圓. 1997. “自由工人運動的先驅: 獨立工會‘全紅總’記實.” 『北京之春』 3, 4, 5月號.
- 房維中 主編. 1984. 『中華人民共和國經濟大事記(1949-1980年)』.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徐友漁. 2006. “關於兩個文革的爭論.” 『開放雜誌』 233期.
- . 1999. 『形形色色的造反』 香港: 中文大學出版社.
- . 1989. “異端思潮和紅衛兵的思想轉向.” 『民主中華』 香港: 遠東事務評論社.
- 楊小凱. 1997. “文化革命中毛澤東控制下的準政黨政治試驗.” 羅金義, 鄭文龍編. 『浩劫以外: 再
論文化大革命』 台北: 風雲論壇.
- 楊曦光. 1996. “中國向何處去?” 譚放, 趙無眠 編輯. 『文革大字報精選』 香港: 明鏡出版社.
- 劉國凱. 2006. 『人民文革論』 香港: 博太出版社.
- . 2006. “論人民文革.” 『北京之春』 1月.
- 劉少奇. 1985. “我國應有兩種教育制度, 兩種勞動制度”(1958.5.30). 『劉少奇選集: 下卷』 北京:
人民出版社.
- 王年一. 1996. 『大動亂的年代』 鄭州: 河南人民出版社.
- 王紹光. 2004. 『理性與瘋狂: 文化大革命中的群眾』 香港: 牛津出版社.
- 于建嶸. 2010. “群體性事件症結在於官民矛盾.” 『中國報道』 第1期.
- 李遜. 1997. “文革中發生在上海的經濟主義風.” 羅金義, 鄭文龍編. 『浩劫以外: 再論文化大革

命』台北：風雲論壇。

_____. 1996. 『大崩潰：上海工人造反派興亡史』臺北：時報文化。

印紅標. 1995. “批判資產階級反動路線：造反運動的興起.” 『二十一世紀雙月刊』。

林偉然. 2011. 『一場夭折的中國文化啟蒙運動：階級鬭爭理論和文化大革命』。威斯康星大學。

鄭義. 1992. “毛澤東的文革和人民的文革.” 『九十年代月刊』。

程惕潔. 2006. “四十餘年回首，再看內蒙文革.” 문혁 40주년 국제 심포지엄 자료집. Columbia University.

周倫佐. 2006. 『文革造反派真相』。香港：田園書屋出版。

朱學勤. 1999. 『書齋裏的革命』。長春出版社。

中共研究雜誌社編輯部. 1973. 『中共文化大革命重要文件彙編』。臺北：中共研究雜誌社。

中共中央辦公廳，國務院秘書廳文化革命聯合接待室編印. 1967. 『無產階級文化大革命有關文件集(第四集)』。北京。

中國人民解放軍，國防大學黨史黨建政工教研室. 1988. 『文化大革命研究資料，上冊』。北京。

陳東林. 2000. “毛澤東的新‘階級鬭爭’論斷與‘文化大革命’的起因和特點.” 『中共黨史研究』第6期。

陳安民，劉曉霞等著. 2006. 『中國農民工：歷史與現實的思考』。北京：華齡出版社。

何蜀. 2006. “論造反派.” 문혁40주년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Columbia University.

向青，劉宇凡. 1997. 『從官僚社會主義到官僚資本主義的中國』。香港：新苗出版社。

“工潮透視”. 『南風窗』2010年 第13期

<http://www.nfcmag.com/articles/2165>.

關於建國以來黨的若干歷史問題的決議」

<http://cpc.people.com.cn/GB/64162/64168/64563/65374/4526448.html>.

「關於國營企業使用臨時工的暫行規定」

<http://law.51labour.com/lawshow-57457.html>.

「關於改進對臨時工的使用和管理的暫行規定」

<http://law.51labour.com/lawshow-69371.html>.

武振榮. “該紀念‘人民文革’”

<http://www.newcenturynews.com/Article/gd/200601/20060119115104.html>

方圓, “從全紅總談人民文革”

<http://boxun.com/news/gb/pubvp/2006/05/200605172258.shtml>.

上海市地方志辦公室 <http://www.shtong.gov.cn>.

沈福祥, 『我的文革歲月』 <http://blog.boxun.com/hero/shenfx/>.

「兩岸三地」高校富士康調查總報告

<http://www.21ccom.net/soft/zlfx/shehuixue/2010/1011/21502.html>.

王希哲, “人民文革簡要問答”

<http://global.dwnnews.com/big5/news/2006-06-18/2326014.html>.

周恩來一九六七年十一月份對鐵路系統講話主要精神匯編

<http://www.wengewang.org/read.php?tid=25385>.

閑話, “人民文革是毛文革的一部分”

<http://www.boxun.com/news/gb/pubvp/2006/05/200605171448.shtml>.

紅草, “向全紅總致敬: 1966-67年中國獨立工人運動的午夜吶喊”

<http://red-mole.appspot.com/?p=103001>.

Lee Ching Kwan, 2006, *Working in China: Ethnographies of Labor and Workplace Transform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ABSTRACT**History and Legacy of the Chinese Labour Movement****JANG Youn Mi**

Research Professor

BK21 East Asian Studies, Academy of East Asian Studies,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d the temporary workers' struggle at the Cultural Revolution periods in China, especially studying on the leading national organization, Quanhongzong(全紅總), and examined the contemporary meaning of that. The temporary workers were the first to made their regional or national organization, which were united by lateral coalition. They made an attempt to gain political and economic rights, and to break the existing structural limits, separated by hukou and unit. Chinese leaders were very sensitive about these way, which were beyond the unit, sector or area. And they made efforts to restore the part of the unit with a focus on cellular, vertical control structures. However, the temporary workers' organization continually demanded the improvement of the discriminatory and oppressive system. In particular, Quanhongzong adopted the doctrine and asked for equal pay for equal work, retraction of contract worker system and discriminatory rules, equal wages and welfare treatment with full-time workers. A goal of the temporary workers' struggle is a labor rights and the right to live, in this sense, their action can be acclaimed as the independent labor movement.

Before the CR, the people were an isolated and passive element, but they were shared the consciousness on the labor matter through meeting people who own a similar situation in the change of political environment. In short,

the chaotic situation like CR, paradoxically made a collective behavior through nationwide exchange of 'isolated' workers within area or unit. In this process, the temporary workers were increasingly gained the power of public awareness. This innovative conversion had significant impacts in the formation of workers' class consciousness and identity.

Key Words Chinese labor movement, Quanhongzong(全紅總), Cultural Revolution, temporary workers' struggle, two interpretation on the Cultural Revolution

